수출 · 생산 · 소비 반등… '경기낙관'은 경계

정부, "각종 지표 긍정적인 신호에도 국민들 체감 못해 ·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요인 여전" 평가

수출 ·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진했던 소비까지 반등하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 ·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앞서 그린북 10월호에서는 "소비가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경기 진단을 내놨었다.

한 달 사이에 소비 지표가 호전되면서 정부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9월 전월보다 3.1% 증가해 지난 2월(3.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0월 장기 추석연휴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선(先)구매 수요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호조 덕택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월 109.2로 전월(107.7)보다 오르며 석 달만에 상승 전환했다.

여기에 한중 관계 회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완화할 조짐을 보여 향후 소비지표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지난 7월엔 69.3%까지 줄었지만 10월에는 46.9%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수출과 생산, 고용 등 주요 지표도 개선 흐름이 확연히 나타난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조업일 감소에도 반도체 · 선박 · 석유제품 등 주력품목 호조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생산 지표인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도 일제히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 선박 · 화학제품 생산 증가 영향으로 전월대비 0.1%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2.8%)와 보건 · 사회복지(3.5%), 부동산 · 임대(3.2%) 등의 호조로 2015년 7월(1.7%) 이후 최대 폭인 1.3% 늘며 4개월 내리 증가세를 기록했다. 9월 고용은 8월의 기상악화 요인 해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했다.

정부는 각종 지표에 긍정적인 신호에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외 통상현안과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 지속과 추경 집행 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 · 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수 있도록 추경 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은행, 사회복지사 힐링데이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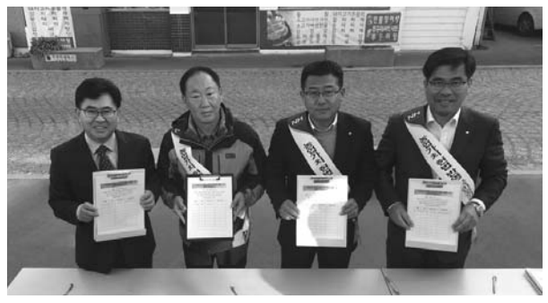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북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힘을 내요~ 슈퍼파워! 제2회 사회복지사 힐링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대상자들의 행복한 삶의 구현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도내 사회 복지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8일 열린 행사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잠시나마 쉼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임용택 전북은행장의 '힘이 되는 힐링 이야기'를 시작으로 푸른안과 윤상원 원장의 '힐링과 스카(scar)' 의학특강, 개그맨 김영철의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힐링 특강 순으로 꾸며졌다. 또 어쿠스틱 밴드 '채움'과 L.D.A 힙합 댄스 팀의 문화공연, 사회복지사들의 희망을 불어넣은 풍선 퍼포먼스 등도 펼쳐졌다.

특히 도내 사회복지 기관 · 단체장들이 후배 사회 복지사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뉴시스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돼야"

농협 무주군지부,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실시

농협 무주군 지부(지부장 이정환),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은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의 전국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0일 무주군청 민원실에 앞에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운동 전국동시다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무주군청 임직원이 참석해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운동에 동참했다.

이정환 농협 무주군지부장은"농업가치 헌법반영 운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공감하는 국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며"농업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농업인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은"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한다."며, "무주군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천만 서명운동에는 황정수 무주군수,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무주관내 주요인사가 동참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보전,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 및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하반기 인턴사원 수료식 시행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한광덕)는 지난 10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인턴사원 수료식'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레일 인턴십 수료증 전달식, 인턴사원들의 소감발표, 본부장 및 간부들의 격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날 참석한 인턴사원 11명은 지난 9월 11일부터 약 2개월간 전북본부에 배치되어 현장 실무수습을 수행했다.

인턴사원들은 "철도인으로서 열정을 키우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따뜻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하며 "꼭 합격해 코레일의 구성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광덕 전북본부장은 "약 2개월간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한 인턴사원들의 수료를 축하한다"며 "모두가 합격하여 코레일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낌없는 격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코레일은 인턴사원 750명의 80%에 해당하는 605명에 대한 최종 합격자 명단을 금일 중 발표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장 김치 직접 담근다 65.3%… 지난해 0.5%p ↑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정이 전체 가정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패널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이 65.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4.8%보다 0.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013년 56%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장을 직접 담그는 이유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맞출 수가 있다(5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판 김치보다 원료 품질을 믿을 수가 있어서(30%)', '절임배추, 김장양념(김치소) 판매 등으로 인해 김장하기 편리해져서(10%)' 등으로 나타났다.

시판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13%로 지난해(11%)보다 늘어난 반면, 지인에게 구매(9%) 무료 조달(13%)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인을 통해 조달 및 구매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부모가 고령화되면서 김장을 하지 못해 직접 담그거나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판김치는 맛과 품질이 균일하고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시스

김동연 "최저임금 보조 1년만 할 가능성 크지 않아"

"두리누리 확대 생각 있어"… 부가세 정비 제안엔 반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최소 2년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볼 생각이지만 내년 한 해만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해만 하고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 · 사회 구조 상황과 양극화 문제의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느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저희도 숫자 보고 놀랐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용자 측이 제시한 73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도 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해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완에 나서자는 제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300만명 중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73만명 정도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부담 압박이 큰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보강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두리누리를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두리누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정비해 부정수급과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거래에 부과하는 간접세 성격의 부가세를 건들리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본부 소재지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